

四月의 함성이여 통일로 부활하라

4月 나무들 앞에

【黃】芝【雨】

불나무들은 온 몸이 근질근질하여라
사망 데로 터져나오는 힘 때문에
제 몸 안에 상처기를 만들며
여기 저기 세상에

한글

장, 망, 땡, 땡, 땡



170

화염병을 터뜨려 놓네

올해, 맑고 눈물겨운 봄나무들이여
나무들은 뿌연/포연 속에서
쿨럭쿨럭, 인사를 뱉고
쿨럭쿨럭, 꽃들을 뱉어
한 세상 가득한 꽃다발이 된 이후,
몸으로 말을 대신하여
이 봄을 세습하는구나

지난 겨울

바람속의 나무들은
자기 몸 속에서 우는 짐승같은 소리를 들
어고

한 겨울 얼음설화에 단련된
제 몸속 제 다йте의 메아리가
통일염원 45년
통일염원 45년
울부짖는 소리 들었네

아. 어느새, 4월의 二世들이여
또 다시 봄을 몸으로 대체하여
심천리 금수강산
꽃 피는 금수강산
산더미 같은 함성 지르며
온 산이 불나루 되는
땀과 눈물 겨운 꽃 나루되는
4월의 二世들이여
아름이 없었던들
싸움의 세습되라

화보 : 金 歡 泳 (민미협) <4.19의 부활>

◀ 詩人 ▶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에 이르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에만 높다 하더라

옛 시조에서 다시 배우는 왜기의 참뜻.

조선전기 4대 서예가중 한사람인 양사언(楊士彦:1517~1584)이 지은
귀에 익은 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매(매)만 높다 하더라」.

이 시조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 깊고 큰 소리로 다가와
폐기의 참 뜻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점점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사회에서 세계와 당당히 겨루어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채념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기입니다.

패기는 일과 싸워서 이기는 기질로서 선경에서는 사고방식, 행동방식, 일처리 방식 등 3가지로 나누어 훈련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는 적극적으로, 행동은 진취적으로, 일처리는 빈틈없고 야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패기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식과 함께 패기를 고루 갖춘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SUNKYONG
선경그룹

(주)선경·선경인더스트리·(주)SKC·선경매그네틱·쉐라톤위커힐·선경건설·(주)유공·(주)용국상사·유공해운

社說

모든 동국인의 귀와 입 다짐
창간 39돌을 맞이하여

지난 4월15일은 東大新聞이 창간39돌을 맞는 뜻깊은 날이었다. 인성실이 39년이라는 야망과 감성에 불타는 청년기에 서 벗어나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고 자신의 기량을 펼쳐 드러내 보일 만큼 성숙해진 시기다. 하물며 민족을 선도하고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는 언론으로서 지성의 편애를 뜻깊이 세우고 서른 아홉해동안 거듭나기를 계속했다면 언론과 성숙도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이제까지 동대신문이 걸어온 길은 「시련과 아픔」의 역사이며 굴곡의 연속이었다. 비록 본지에만 한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사죄·정지처분과 같은 언론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불행이 계속되었던 언론과 성숙도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또한 가치관의 혼란으로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변함없이 건전한 언론을 추구해 오고 있는 동대신문의 기동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동대신문은 그 대학의 얼굴이라 하였다. 대학의 문화향수와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한층으로 학구적 풍토조성과 사싵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저널리즘의 조화가 특히 필요하였다. 우리는 불건전한 편향된 글

로써 독자를 오도하고 사고의 혼란을 주는 말의 횡포도 보았으며, 단지 눈앞의 현실에 골몰하여 언론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는 언론 매체도 보았다. 그러나 이것을 다만 기성언론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으로 돌리기에 그 동안 대학언론의 역할을 점검·자정해 볼 필요가 있었다.

자율속에서 대학의 본질을 찾고 내일의 주인으로 나설 대학인에게 올바른 사고관단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는 역할이 바로 대학언론이 수행해야 할 임무가 아닐까.

또한 최근 각 대학에서 학원의 자주와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많은 대학들을 볼 때 언론의 형식과 대중의 소리를 담아내는 책임을 한층 더 느끼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東大新聞은 동국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어 왔다. 간혹 서포터의 주장이 난립하는 격한 상황에선 「동대신문은 누구의 신문인가」라는 물음도 던져졌으나 결코 치우치지 않고 모두에게 정당한 접근을 시켜 주는 신문이 아닌 창조적 신문, 자율속에 성장해가는 신문이 될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하는 바이다.

다시 생일을 맞아 새로운 각오로 「민중·민주언론의 선포」으로써 동국의 귀와 입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

「빨갱이 논리」는 이제 그만

민주화와 통일에의 길을 개척하라

문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정부가 대북 정책을 시도한 사회를 구상하면서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구속된 인사들이 비록 실정법을 범했다고는 하나 보안법 자체가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의식이 점차 높아지는 시점기에 우리는 사태의 발전을 예의 주시한다.

여대 정권이 보안법 내지 반공법으로 진보적 인사들을 무리하게 다뤘었다는 점은 끊임없이 추궁되어 왔다. 그런 무리함이 정권 유지나 기득권보호를 위해 의식을 얹고 견제를 동장난 채로 두려는 일부 세력의 음모라는 해석도 정치 세력을 얻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어쨌든 온갖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삶 길에 겨레의 하나 됨에 있어는 의식이 선구자들의 희생으로 넘어져 있다. 우리는 이 조지들이 언론 자유를 위하고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소리가 커지면서 「빨갱이」논리에 의한 갑갑 조치는 민주주의는 통일없는 불가능하다는 의식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와 통일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

는 시대이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목격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정부도 현실을 인정하여 북한 당국을 「동반자」로 여기는 등 진보적 시각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보적 시각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 진의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인정하는 사람이 만나면 동반자를 만난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면 빨갱이를 만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공법으로까지 인식되어가는 보안법의 폐기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면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보다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한 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의 보안법적 조치들이 국내 정국 물파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줌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우리는 이 조치들이 언론 자유를 위하고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소리가 커지면서 「빨갱이」논리에 의한 갑갑 조치는 민주주의는 통일없는 불가능하다는 의식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와 통일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

시대를 부동켜안은 대학생으로

4월혁명정신 새롭게 용솟음쳐야

박영근
〈중앙대교수·불문학〉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이탈은 반민주주의의 기독권을 위해 얼마나 오름·남용되어왔던가!)를 위해 또 다시 희생을 치르고 피를 흘려야만 한단 말인가? 진정 4월은 전인한 달인가? 결코 아니다.

최근 여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이 뜻깊은 저절 코메디를 볼 때 2백여명의 젊은이들이 죽어살아있는 4·19로지의 기념탑 전면에 놓인 비석의 글이 생각난다.

『1960년 4월19일, 이 나라 젊은이들의 혈관 속에 정의를 위해서 흘려 던진 피, 이것은 피의 전통이 용솟음치고 있음을 역사하는 증언이다.』

부정과 불의에 항쟁한 수만명 학생 대열의 의기의 힘으로 역사와 수레바퀴를 바로 세우고 민주 제도에 이르러 부른 1백85명의 젊은 혼들은 거룩한 수호신이 되었다. 해마다 4월이 오면 집총세 들을 속에 그들의 피를 은은 하소연이 들릴 것이고, 해마다 4월이 오면 불(燄)을 선구하는 진달래처럼 민족의 꽃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피는 아 피어날라.

이 1백85명의 젊은 혼에 대한, 어느 시인의 절구처럼 「그 뿌리엔 임리(淋瀝)한 붉은 피는 물더고온 피꽃잎, 피꽃은 감을 이루, 감잎이 갈았으면 하늘 푸르름」이 되는 날은 언제인가? 그런데 이 1백85명의 꽃들속에 그들을 가르친 교사나 교사 그리고 소위 나라를 사랑한다는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을 한결 불수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대 폭력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늘 그러했듯이, 좌파 정부와 여당은 그 추종세력과 더

불어 문목사의 방북을 기다렸다 는듯이 소위 민주세력을 「적의적력세력」으로 규정하고 사건마다 보수·혁신의 양극화된 틀에 끼워

여권, 냉전시대로 회귀하려해
국민의 단결된 역량 표출할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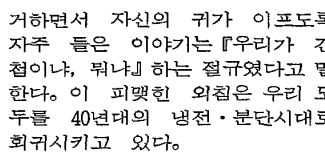
불어 이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간다고 늘어놓을 개드립이라고 있다. GNP가 4천달러라는 이 나라에서, 올림피아를 지른 이 땅에서 「정부주도형 이데올로기 전정」의 의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5공 청산과 광주민주화투쟁의 진상, 반민주주의의 철폐 및 자치제를 의면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중 간쟁가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이 정권의 무능력과 통치력의 한계를 보았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라는 도끼비 방향임을 휘두르면서 현대중공업의 사태를 일방

적인 공권력으로 진압사실에서 이 정권의 실책이 명확히 드러남을 우리는 알았다.

공권력은 철저히 재벌권에 서서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을 위해 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가혹스러운 점은 제도언론의 편파, 왜곡보도사이다.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지 않은채 노동자를 폭도·파 격 집단·극한투쟁자로 몰아치고 노사가 아니라 노·노대결이라고 원 남덕택에 나팔을 불고있다.

독점재벌에 기생해서 아부하는 제도언론은 왜 정경과 백골단에 의해 자행된 노동자에 대한 처참한 진압은 실상대로 보도하지 않는가? 무차별하게 진압하는 반 인간적인 행위에 항의하고 노동자에 동조한 시민의 행동은 어



거하면서 자신의 귀가 이프도록 자주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간첩이나, 뭐냐」하는 절구였다고 말한다. 이 피맛한 의집은 우리 모두를 40년대의 냉전·분단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다.

노동자를 폭도로 몰아간다고, 시민들은 그 폭도로 동조를 하고, 80년 광주 5월처럼 주먹밥이 등장하고, 외지에서 투입된 공포의 백골단에 의해 자행된 파업 진압, 그리고 언론의 편파보도등에서 울산사태는 마치 제2의 광주를 연상하게 한다.

또한 「그는 어느 노동자의 아내가 자신에게 한 얘기를 들려준다.」 「여기 사람들은 요즈음 광주항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제 잊었다는 말을 많이 한다. 나도 예전에는 광주사람들을 욕하던 냐는데 지금은 그게 후회된다. 지금은 모든 시민이 파업노동자

통일을 위한 확실한 담보물임을 확인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의 회원 1천5백명의 교수들은 현대사태 설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참칭하는 현정권이 독점재벌의 태를 비호 발조하고 무력진압으로 노동자를 적대하는 것은 국민대중이 아니라 독점재벌을 자신의 권력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규탄한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았다. 4월의 한복판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온몸으로 이 시대의 파궤적인 구조모순에 부딪쳐 그것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지시해서 실천을 이루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죽어서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는 1백85명의 젊은 죽음앞에서 독재군사정권하에서 처참히 짓밟히고 고문당하고 분신한 열사들 앞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이 시대를 부동켜안고, 「나는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자문해야 할 때이며, 결코 우리의 기발, 우리의 의회 우리의 정치는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음문차게 명심해야 한다.

통일준이었던 장준하선생께서 4·19 직후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요 즈음이다.

「4월 혁명은 자유와 민족의 선각자인 이 땅의 지식인들의 손에 의한 혁명이다. 그러나 우리의 혁명은 아직도 그 정도가 요원하다. 마음의 혁명이 제도만을 바꾼들, 사상적 기초없이 독재자만을 제거한들, 부정속에 계속 항거하는 단결된 국민의 역량이 없다면 또 다른 형태의 독재나 또 다른 모양의 부패를 미연한 방법으로 막았는가? 지금 이 나라의 사태를 관찰하건대 전에 는 너희가 해마다 오 오늘은 우리가 좀 해먹을 차때라는 식으로 되어가는 것같이 가슴아프다.」

4월 혁명정신은 이 사태를 뒤 돌리게 하고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회를 「통짜」할 것을, 우리 사회를 「통짜」할 것을, 우리 사회의 투기가 가야 할 갈목에 앞장서고 있어서는 아니될 을 바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결계는 정영호 가라!

"일회적인 등록금동결 극복"

학교당국은 우리 1학년학우가 입학하기도 전 신입생이란 약점을 이용하여 등록금과 입학금을 부당 인상하였고, 재단 전입금 또한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동학에 첫발을 내디딘 우리들은 과거 선배들의 민주화투쟁, 학원자주 투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각 과의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학년 과대표를 중심으로 학교 전반에 걸친 위와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1학년 자치협의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한 차례의 서명 운동과 집회를 거치는 동안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동학의 참 주인이 되어 어느 학원에 뛰이지 않는 동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등록금 및 입학금 환불로만 그칠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1년 뒤 우

리들의 후배들에게도 똑같은 악순환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등록금 및 입학금 환불 투쟁으로 시작되었던 학교 당국과의 싸움은 투쟁의 과정 속에서 전진을 거듭하여 일회적인 등록금 동결의 문제를 뛰어넘어 재단이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재단합성화추진위원회」 구성 요구로 뜻이 모

신입생주체된 입학금환불투쟁으로
학원자주의 선봉대열에 나서게 돼

아졌던 것이다. 일정한 전입금을 확보하여 학교 운영 예산에 반영해야 할 학단기 기본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한 현 시점에서 학교합성화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책임과 부당한 처사에 그 책임을 뒤집어 요구하며 투쟁하여 왔고, 앞으로도 투쟁해 나갈 것이다. 재학생들은 지난해 1백36명 동안의 투쟁으로 너무나 지쳤고,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이므로 주 출거되고 있는 상태라고 여겨진다. 이러한에 1학년 신입생들이 등록금 및 입학금 환불투쟁과 더불어 재단합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봉으로 재 등장하였다. 1학년들의 투쟁을 기치로써 이제는 총학생회 및 학자부의 연대로서 과업성취를 위해 계속 투쟁을 나가야 할 것이다.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한 1학년 자치 협의회에서 결정되었던 환불의 원칙은 모든 1학년 학우에게로의 일괄 환불이며, 그 환불 되어진 금액이 학생회비라든가 기타 여러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각 과 자체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재단합성화」 구성 요구의 대우로 「재단합성화」 문제는 해결이 안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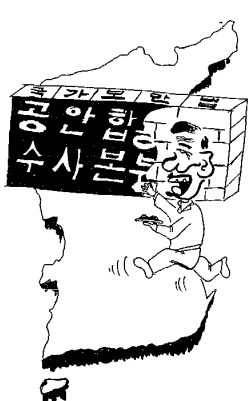
도 있는 균형 잃은 동결의 위험성도 포함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 문제가 생긴다하더라도 「재단합성화」 문제가 1학년 자체의 문제를 넘어선 동학인 전체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투쟁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투쟁 활동의 과정을 살펴보면 서명 운동과 세 차례의 집회를 거쳐 등록금 및 입학금 환불 약속 즉각 이행, 기속

사 즉각 전입, 재향 군인회, 신축 약속 즉각 이행, 전입금 즉각 확대, 「재단합성화 추진위원회」 즉각 구성 등을 요구하였으나 14일은 출판부로부터 교과서 대금을 반환받을 것을 약속받았다.

우리 1학년 학우들은 또또록 총합한 결말을 위해 외로운 투쟁을 쉬지않고 전개할 것이다. 오 대혁 <문과대 국문과>

東國漫評



◇지금 공사중입니다!

소비트 최대의 여류작가이자
대학교수인 이.그레코바



우리에게 낯선 사회의 삶의 겉을 지상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소설이다. 재미있고 인물묘사의 솜씨도 돋보인다.

—문학평론가 유종호

딱딱하고 메마르고 조종한 것으로만 여겨지는 소련의 대학 사회도 우리나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떠들썩하고 모순에 차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재밌는 소설이다.

시인 신정림

소련 문학이라면 오래전 혁명 또는 반체제만 떠올리던 우리 독자들에게 「대학교수」는 새로운 충격이다. 체제와 이념이 어떠한 문학이 보여주는 다양함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소설가 이문열

대학교수

《대학교수》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후 대학의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시스템과 권위주의에 길들여진 교원들의 정산구조에 비판을 가하는 소련대학의 현실이 밀도있게 그려지는 작품이다!!

◆신국판/372면 ◆장가 4000원
◆서울특별시 중로구 원남동 194번지 창곡빌딩 206호
◆전화: 763-0398(영) 764-2380(편)

문인당

〈학생처 제공〉
학자금대출을 받으신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 대출은 학생여러분의 면학을 돕기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대출하여 드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융자제도로서 국민은행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드릴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분할상환기간	상환방법
단기학자금	대출후 1년 이내	①매월 소정 납입일에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한다.
장기학자금	① 85. 8. 1. 이전 (재학기간) 5년 이내 ② 85. 8. 1. 이후 (재학기간) 3년 이내	① 85. 8. 1. 이전 (재학기간) 5년 이내: 매월 소정 납입일에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한다. ② 85. 8. 1. 이후 (재학기간) 3년 이내: 매월 소정 납입일에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한다.

수) 장기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으로 공복무에정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대출을 위한 연기정자를 하신면 공복무기간만 갹지기간을 연장할수 있으며 연장후 공복무기간 중에도 이자는 매월 납입하여야 합니다.

2. 학자금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은행으로서의 제도에 회수를 못하게 되므로 자금의 회전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 여러분의 학우들에게 융자하여 드리고자 하는 저희은행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3. 학자금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

연체가 정리되지 않으면, 학자금대출의 확대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일반시민대중이 앞날에 지속적인 자금으로 융자하여 드리고 있는 점을 심분간 안하시어 연체금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하여 연체를 하시는 분은 대출을 받으신 지점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민 은 행

공 고

그동안 학교에서 자판기·복사기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우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수혜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기계감가상각비 3,100만원과 퇴직금 4,836,536원을 적립하지 못하였으 며, 금년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로 자판기·복사기 관리운영 일체를 인계함에 있어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운영하원에서 '88회계년도 수입금증 기계감가상각비 11,888,671원과 퇴직금 4,836,536원을 적립하고 아르바이트학생 12명을 학생복지 위원회로 인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89학년도 제1학기에 지급하는 장학금이 5,510,000원으로 축소되었음을 알리오니 양지하기 바랍니다.

1989년 4월 11일

그동안 학교에서 관리 운영하여 오던 자판기·복사기를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기로 합의, 다음과같이 인계 인수하였기에 공고함.

다 음

1. 인계인수명: 자판기, 복사기

2. 인계인수일자: '89년 4월 11일

1989년 4월 11일

복지사업관리위원회

사실주의 통한 전환기 극복을 자각

월북작가 김남천의 문학과 현실인식



신상성
〈유도대교수·문학평론〉

1. 들어가는 말

최근에 북한문학을 비롯하여 연변문학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우리문학의 영역에 대한 지평을 확대하는 한편 문화와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북한문학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김남천에 대해서 그의 문학적 성향과 현실인식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남천은 카프에서도 극좌 소정파로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첨예한 이론가였다. 산문정신에 있어서 한국의〈카프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천재성과 명징한 논리는 식민지시대 문학이론의 등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터이다. 그는 소설을 쓰면서 자기의 이론을 스스로 실험하기도 했다.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비평과 창작을 가릴하게 정립화시켜 나갔다.

그러나 급변하는 식민지사회에서 그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의 이론에 많은 갈등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고발론→모탈론→종속론→로만개조론→관찰문학론으로 상황에 따라 변모되어 간다. 나중에 이는 일어로 작품을 발표할

고발론에서 관찰문학론까지

변모하며 이론을 정립

정도로 전일행위를 하든 파행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것은 당시 대개의 작가들이 그랬듯이 식민지라는 사회가 작가들에게 얼마나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었는가를 반증해 보이는 뜻도 된다. 그는 자유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민족적 이상주의자였다. 일본의 군국적 제국주의, 북한의 교조적 공산주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파괴되어간 한국 지식인의 한 전형인 우리를 그에게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의 소설의 경우, 장편은〈대하〉〈사람의 수족관〉등 몇편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중편·단편 단편들이다. 〈3·1운동〉이란 회고록도 있으며〈소년행〉〈맥〉〈사람의 수족관〉의 창작집도 3권이 있다. 그는 에세이 하나에도 문학 또는 문학이론에 관계되는

것을 치밀하게 쓸 정도로 문학에 대해서는 애민하고 열광적이었다.

결국, 그는 월북한지 6년만에 그가 발표한 작품 속에서「머리를 남쪽으로 두고 죽는다」는 귀결 때문에 속점을 당한 뒤, 결국 죽어버리게 된다. 김남천은 가장 뜨겁게 살다간 이광의 선비적인 문사이며 철저한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2. 작가생활의 초기와 중기

30년대라는 시대가 갖는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먼저 분석해보자. 여기에서 30년대의 대표작가인 열상성, 채만식, 김남천의 세 작가가 어떻게 살았으며, 그들의 현실인식이 어떠한 시대성과 역사성을 얻게되었는지, 그들의 창작활동을 추적함으로써 그들의 작품을 분석하는데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한 작가가 살아 숨쉬었던 가정과 사회는 그 작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그것이 작가들의 세계관을 형성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그것이 작가들의 세계관을 형성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남천이 문단에 나온 것은 30년대 초, 단편〈공제생산조합〉과 회고록〈파업조정안〉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남천은 39년 11월 「인문평론」에 발표한〈J일보사〉까지 30년대에만 약 36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장편은〈대하〉한편이고 중편이〈세기의 화문〉등 4편이다. 나머지는 전부 단편인데 미발표 작품까지 합하면 훨씬 많아진다. 이것을 연도별로 정리해 본다면〈표1〉과 같다.

39년〈대하〉를 발표하기 2년 전부터 왕성한 창작의욕을 보였는데, 그는 이미 중단 현재까지

남천은 강경노선을 걸다가 차차 온건 사회주의자로 변모하게 되는데, 그것은 30년대 작품을 초기—중기—후기로 나누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자신 중기(제2기)라고 예기한 1931년부터 7년간을 불행한 시기라고 앞에서 말한 바 있는데, 그것은 31년에 카프 제2차 방향전환기에 입회 등과 귀속했다가 제1차 카프 검거 때 체포당했던 일련의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초기의 유물변증법적 사실주의에 의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관찰문학론」에 이르렀는데 그 변모과정은 자기고발론→모탈론→종속론(세태론)→로만개조론→관찰문학론으로 문학정신의 이진현상을 보인다. 당시에 발간했던 창작집

이다.

3. 문학적 성장과 현실 인식

다음은 남천의 생애적 삶의 현장에서 현실인식의 궤적을 연결해 보자. 그의 문학적 정신을 결정지워 준 것은 월북과 같이 일 본유학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 월북이 민족주의를 고집한 반면에 남천은 카프·동경지부 동인 지인〈제3전선〉에서 안락과 함께 가담하면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과 연계를 갖게 되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전체적으로

유학과 카프가 그의 문학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유학에서 문학의 눈을 뜨게 되고, 카프의 담에서 프로문학에 경도된 것이 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전체적으로

중에는 코르타이에 현혹되어 왕성한 지식욕으로 유학의 꿈을 세운 것이다. 그가 귀국 후, 프로문학 비평에 이론적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작에 영향받았던 코르타이등의 독서체함과 무관하지 않다.

앞술은 남천의 작품의 전체 경향을 분석하면서 크게 3가지 성격으로 분류하였는데 ①〈소년행〉등으로 분류되는 꿈꾸는 세계 ②〈처를 때리고〉등의 자괴적인 세계 ③〈누나의 사건〉등의 세상 스케치의 세계로 규정하고 결론적으로 관찰과 이해의 세계는 있으나 인식과 연소의 세계는 없다고 했다.

남천이 순수문학을 지향하면서도 프로비평에 민감했던 것은 그의 다양한 독서경향과 함께 첨예한 이론적 체질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카프는 제1차(27년)에 이어 제2차(31년) 방향전환이 지 도부에 의해 심각하게 일어나고 박정희의 「일은 것은 미래를로기요, 일은 것은 예술이다」라는 전향선언(33년) 이후 카프조직은 이미 와해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좌 소장그룹인 남천은 입화가 「해산계」를 제출하기까지(35년) 최후로 남았을 정도로 핵심인물이었다. 프로문학은 박정희의 지적대로 창작보다 이론이 유행했던, 문학비평의 과학화에 문학사적인 엄격도 있었지만 문학을 정치주의에 오염시키는 오류로 인해 자멸하고 만 것이다.

남천의 문학정신에서 프로문학성을 제거한다면 빼어난 살만 남을 것이다. 카프의 문학성뿐만 아니라 정치성에도 철저히 무장했던 카프의 해체 후 보여준 그의 식의 변천과정을 보면 당시 엘리트 집단의 통렬한 고뇌 의식과 독과독의식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카프의 허구와 실상에 대한 생생적 체험은 그의 문학을 형성하는 특수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된다.

남천의 문학적, 생애적 문학의식의 궤적을 보면 그의 의식과 시대에 대한 현실인식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는 박통과 같이 문학에 대한 생리적인 열정을 갖고 있으며 종속사실부터 다양하고 왕성한 독서체질을 갖는다. 월북과 같

<표1>

김남천의 작품연보

발행 연도	제목	발행처	발행 연도	제목	발행처
1 1933년	나난구(중편)	조선일보(중단)	1930년	공제생산조합	조선지광
2 1938년	세기의 화문	여성(3~7호)	1931년	공정신문	조선일보
3 1939년	大河	인문평론사총서	1932년	공우회	학지광
4 "	바다로 간다	조선일보(5.2~6.15)	1933년	남편의 2편	신여성등
5 "	사람의 수족관	(9.1~10.3)	1934년	문예구락부	조선·중앙일보
6			1937년	남편의 4편	조선문학등
7			1938년	요지경의 7편	조광등
8			1939년	주말여행의 9편	아름답게
계		5(4)편			30편

하여 핵심적인 이론가로서 비평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그의 이론 감응성에도 하고 해체 후에는 창작방법에 대한 거듭된 변모과정을 보인다. 그의 변모와 혼돈은 당시 지식인들의 정신적 고통에 있어서 대표적인 궤적을 보여준다. 특히 남천에게는 30년대의 문학정신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가 월북 직후에 발표한 작품에서 「머리를 남쪽으로 두고 죽었다」는 대목은 몇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월북 후 공산주의 사회가 보여주는 이상은 그의 이상적 사회주의의 허구를 참담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남쪽」이란 개념은 그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문학이 살아 있는 곳이다. 그것이 극한적인 죽음으로 밖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당시의 사회주의 건설과 그의 이상적 사회주의와의 갈등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30년대에 대표적인 문학작가였던 월북—박통—남천 세 사람의 문학적 시대적 궤적이 우연히 공통적이다.

4. 시대인식과 역사인식

결론에대신하여

한국의 현대문학사에서 1930년대는 시대적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30년대는 식민지시대 가운데에서도 정치적—사회적 격변기였다. 이러한 격변기에서 당시 지식인들의 중요한 일꾼을 이루었던 소설가들이 어떠한 현실인식을 가지고 살았느냐는 것은 그들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좀더 근접적인 방편이 된다. 특히, 당대의 대표적인 작가들이면서 식민지시대를 대변하는 작품들이 거의 30년대를 기준으로 탄생되었다는 것도 시대적인 의미를 시사해준다.

지금까지 많은 문학사가 내거는 비평가들에게 대표적으로 거

문학비평이론의 과학화로

문학사에 기여해

이 일본유학에서 본격적인 문학수업을 쌓고 상당량의 습작활동에 전념한다. 종학성 때의 단편만 해도 10편이 넘는다고 자신은 솔직하고 있으며, 중단 후에도 창작활동의 정열은 양이 발표되지 못한 채 묵혀있다고 했듯이 다산작가이다. 왕성한 발표자의 대부분이 단편이고, 장편은 단 하나〈대하〉밖에 없지만, 그의 폭넓은 장편에 있었다.

또 하나는 그가 카프에 가

문되고 있는 식민지시대 작가들은 특히 김남천들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그의 대표작인〈大河〉가 30년대를 기준으로 발표되었다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다. 이러한 작품들이 탄생하게 된 바탕은 30년대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에 있다.

첫째, 사회적인 배경을 정리해

30년대는 한국의 식민지 문제를 포함하여 세계사적인 수평적 기준에서 보면 세계적인 혼돈기

노노점과 우리들의 캠퍼스①—내가 본 멋진 고백

“세익스피어에게 F를 받아도 좋다. 그녀가 A를 준다면...”

봄이 가고 있었다.

학점이 짜기로 유명한 K 교수의 세익스피어 희곡론 시간. 수업을 시작한지 10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옆자리에 있던 복학생 선배가 책상 밑에서 부석부석 거러며 하얀 안개꽃 한다발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응? 오늘이 스승의 날도 아니구, 화이테데이도 아니구...

모두들 의아해했다. 그러더니 아무 말없이 맨 앞자리의 후배 여학생 책상위에 그 꽃다발을 놓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밑문을 잃으신 선배님께 꾸벅 인사를 하고는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때 강의실은 조용함을 지나 숙연해 지기까지 했다. 얼굴이 빨개진 그 후배 여학생은 잠시 머뭇거리다 가슴에 안개꽃을 싹소시 안고 강의실을 나갔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백마탄 기사를 뽐내는 선배의 고백, 늘 수줍어 했는데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났을까? 그 선배의 생각은 이러했겠지?

“세익스피어에게 F를 받아도 좋다. 그녀가 A를 준다면...”

모두가 나약해지는 지금 한다발의 그 하얀 사랑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전설적인 러브스토리가 되었다.

K대 영문학과 김 은미



해태제과

노노점은 젊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캠퍼스를 사랑합니다. 젊음과 보람으로 가득찬 멋진 대학생활을 보내시길요. 슈가레스점—해태 노노점

●충치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입냄새 걱정이 없습니다.

●비만·당뇨 걱정이 없는 완전 무설탕 점입니다.



한민족

1 >

I. 일제 말의 탄압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더구나 이듬해 조선의 벼농사가 흉작이 되는 바람에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이 받는 타격은 더욱 컸다.

일본은 만국적 공황을 타개하고 일여자본의 투자를 위해 군사력 강화를 통한 식민지의 확대 재편을 도모하기에 이른다. 일제는 드디어 1931년 만주를 침공하여 이곳을 지배하고 있던 군벌 장학량을 내쫓고 괴뢰국을 건설하는 동시에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는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와 정책을 추진한다.

중부한 지하자원과 수력자원, 그리고 광상과 같은 노동자보호법도 전무한 상태에서 행해진 무제한적 노동력 착취는 일본 독점자본의 초과이익을 보장하기에 충분했다.

이와 더불어 조선민중에 대한 광범한 착취와 일본자본의 지배력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일제는 더욱 노골적탄압을 가하게 된다.

1931년의 만주사변후 곧 조선 주둔 일본군을 증파시켰으며 그 수는 나중에 23만이나 되었다. 경찰병력 또한 31년 이후 2천9백48개 관서 2만2백29명으로 증가, 일제의 폭력력을 뒷받침했다.

군사력과 경찰력을 늘리는 한편 해외의 민족해방운동과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경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치안의 확립」을 이유로 모든 무기는 몰수되었으며, 국경지대에서는 특히 심하여 식칼조차 열지에 하나 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지독했다.

우리민족은 일제식민지 하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감격스런 조국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또다시 분단의 아픔이 온 겨레의 가슴을 짓누르고 말았다.

민족의 분단을 확정짓는 결정적 계기가 된 한국전쟁, 이것은 단지 1950년 6월 25일의 무력충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8·15해방이후 계속되어온 민족분단의 과정을 완결짓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서 고착화된 분단은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최대의 모순이자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 분단후 46년이 흐른 지금에도 세계 여러식민제와 일국분제로 유도가 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있는 상황

II. 고통받는 식민지 민중들

1930년대 토지조사기록을 통하여 일본에 당시 농민의 80%가 소작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소작농까지 합하면 다섯명의 조선인이

이대마다 1930년대 후반기 일제의 침략전쟁이 확대되자 조선은 군수품 공급지로 성격이 강하게 되고 군수산업은 더욱 발전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후 일본의 주요 목적지인 만주는 발판을 마련해 미쓰비시, 노구찌 등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합방 당시 조선의 직업분포는 84%가 농민이었고 0.81%만이 광산업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6년에는 종업원이 총산업생산의 28%를 담당하였으며, 50만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공

작업에 투입되어 있었다. 이대마다 1930년대 후반기 일제의 침략전쟁이 확대되자 조선은 군수품 공급지로 성격이 강하게 되고 군수산업은 더욱 발전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후 일본의 주요 목적지인 만주는 발판을 마련해 미쓰비시, 노구찌 등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합방 당시 조선의 직업분포는 84%가 농민이었고 0.81%만이 광산업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6년에는 종업원이 총산업생산의 28%를 담당하였으며, 50만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공

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농민도 아니었다.

일제의 진주단 공작이후 한국에 대한 총동원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942년에는 국민동원운동을 위한 예산지출이 1937년에 비해 4배로 증가했고 이듬해인 43년에는 전년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이것만으로도 일제가 조선민중의 노동력 착취를 위해 얼마나 광분하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징집된 노동자가 국내에서만 무려 4백14만6천여명이 넘었다.

이것은 전쟁이 장기화되어갈수록 일본국내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조선의 노동력으로 보충하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징집된 노동자들은 광산과 철도건설을 위한 육체적 노동에 시달렸다. 공식기록에 의하면 전쟁말기에 광부들의 하루 작업시간은 12시간이었고 재해율이 높았으며 노동력은 천천히 이용되었다. 반면 광부들의 하루 배급량은 주곡 7백9에 불과했고 고기나 과일같은 부식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노동과정에서도 관리직이나 숙련부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힘든 육체노동에만 배치되었다. 노

◇글심는 차례

1. 일제하 조선의 상황과 8·15해방
2. 순수해방공간과 정치역학 관계
3. 미·소군의 진주와 군정수립 그리고 분단
4. 이승만의 단정수립과 조국통일투쟁
5. 김일성과 북한의 인민정권
6. 북한의 사회개혁
7.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당시 전국민의 9할을 차지한 농민들의 농민운동 역시 광범할 만하다. 이전보다 훨씬 치열한 모습을 띄었으며 37년에는 소작쟁의가 발생한 이래 최고인 3만 6천7백99건에 달했다.

계급적 모순뿐만 아니라 민족의 모순을 안고있었던 농민사·농민의 운동은 단순한 경제투쟁의 차원에서 벗어나 일제에 반대하는 반제 반봉건투쟁으로 진행되었으며 일제 관련 탄압에 대해 계급대·종지탈환대응을 조직 자신들을 방어하기도 했다.

이같은 농민사·농민의 과감한 투쟁은 대부분의 민족부조자들이 1931년 만주사변후 변절한 것

담을 서늘케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전 조선민중에게 해방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기도 했다.

IV. 해방의 그날

침략과 수탈이 확대되면 필수적으로 그에 대한 반발 또한 커진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침략전쟁 확대는 스스로의 무덤을 자초한 꼴이 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났던 농민사·농민의 거센 투쟁과 항일투쟁투쟁, 주위 인접국들의 반일항쟁은 일제의 패망을 촉진하였다.

1942년부터 일제는 서서히 패색의 기미를 보였으며, 이는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조선 민중에 게 고무적으로 작용했다.

『조선이 가릴 제2전선의 화약고인 이상 전황이 불리하게 되면 언제고 폭동화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사이판섬의 함락은 이후 조선통치를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한 당시 조선총독부의 우려처럼, 일제는 계속되는 패전과 함께 조선지배에 대해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이때 조선민중은 국외에서의 항일투쟁투쟁을 독립운동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해방의 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44년 8월에는 여운열을 지도자로한 건국동맹이 결성되어 국내외 독립운동단체들과 긴밀히 연계하는 등 전국각지, 각국단체에서 해방을 위한 노력이 가열되고 있었다.

<학술부>

학우의 총학생회에 대한 관심 증대라는 산적해 있는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인지 자못 의구심이 앞선다. 그리고 이 과전에 대한 심의부에 따라 총학생회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들을 내릴 수 있다면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첫 단독 출범식이라는 큰 의의를 부여할 만한 여흥 출범식이 교내세력들이 여학생들로부터의 외면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여학우의 단결과 구심점으로서의 총학생회』라는 주제로 5대 총학생회의 유세 실험은 아직 도 말고 힘한가.

『틀러리』 탈피가 조종한 「집안행사」로 그리고 말았지만 단독 출범식의 의의는 혁신으로 나아가려는 한 노력에 있었다.

『경제적 조직들의 혁신을 통한 총학생회의 발전』보다 우선적으로 여학우의 총학생회에 대한 관심 확대와 융합으로 진정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총학생회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한 여흥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안정미기자>

"강제징집·미국공출"로 反日의식 팽배



경북의 임시정부 수립 4백14만6천여명이 넘는 징집된 노동자들은 광산과 철도건설을 위한 육체적 노동에 시달렸다. 공식기록에 의하면 전쟁말기에 광부들의 하루 작업시간은 12시간이었고 재해율이 높았으며 노동력은 천천히 이용되었다. 반면 광부들의 하루 배급량은 주곡 7백9에 불과했고 고기나 과일같은 부식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동해와 직업법이 속출하는 것은 물론 군수회사에서는 군사기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를 감시, 구속하고 악행을 마음대로 가하기까지 하였다.

『소와 17년10월 경상북도 어느 역원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일본인에게서 『일하러 가자』는 말을 듣고, 처넣어지듯 배에 태워졌다. 다급함을 알고는 부부까지 달려온 처자의 모습을 잠깐 보았을 뿐 그대로 일본관, 그후 북해도 공작지점, 奈井江관공의 가건물에 처넣어졌다. 한바다로 지옥 구대 되었다.』 『식사는 공복이고 작업복은 南京製이고 이부자리는 없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강제노동을 당했다』 결코 잘하지 못하는 일본어로 최하는 호소했다 『아사히신문 1973년 4월13일, 북해도 한국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

강제연행은 일제에 의한 조선민중의 노예사냥이나 다름없었다. 이외에도 침략전쟁의 총알방아로 23만이 넘는 조선청년이 징병되었고 위안부라는 이름아래 조선여성들 다수가 전장터에 끌려나가 희생되었다.

III. 해방을 위한 투쟁

일본인들의 직접적 통치에대해 조선인들은 정치적 선택을 한순간에 없었다. 즉 적으로서의 일본에 대한 증오가 있을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항하고 그 결과를 감수할 수도 있었다. 이런 까닭으로 오랫동안 정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한국농민들 사이에 정치의식이 생겨났다. 정치적 선택은 최후반에 까지 다다랐다.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노동·농민운동은 30년대에 들어와 역압과 수탈에 맞서 더욱 치열하게 발전하였다.

1930년대 노동쟁의는 매년 1백50~2백건에 1만2천명~1만8천명이 참가하여 그 회수나 규모면에서도 급격히 증대하였다.

민족·계급 이중모순에 민중들 "신음" 해방 위한 항일투쟁 ... 자주의식 고양

조선임시보안령 (1941년)을 공포하여 전시하의 언론·출판·집회·결사 등에 대한 초비상적 단속을 하였으며 전쟁말기에는 조선전시형사특별령 (1944년) 등을 만들어 재판을 모두 2심제로 바꾸고 국경변방에 관한 형법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량학살에 돌입하면서 탄압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 같은 탄압에 의해 전쟁말기 3만

문에 네명은 소작인인 셈이다. 소작기간이 불안정하고, 높은 최고 9할에 이르는—소작료와 고리대금업자에 의한 몰수는 농가의 빈곤과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그러하여 끼니조차 제대로 잇지 못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였다.

1932년 조선일보를 보면 『배고

이공출제도에 의해 발생산고의 43.1% (1941년) 45.2% (1942년) 55.7% (1943년) 가 수탈되었으며 1944년에는 63.8%까지 공출되기도 했다.

한편 일본 독점자본의 투자와 대륙침략기로서 조선의 중요도가 강조됨에 따라 「농공병진」의 슬로건하에 공업화정책도 적극 추진되었다.

업부문에 고용되어 있었다. 노동자들은 급속히 증가하여 1944년에는 150만에 달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아직은 유사 (Spuria) 노동계급이었으며, 미성숙한 상태였다. 이들은 또한 자의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1930년의 토지집중현상이나 강제징집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하여 그들은 전형적인 노동자

중외제약

샤린스로
즐거운토요일!



토요일은 샤린스로 단백질 제거하는 날!

눈의 건강을 위해 1주 1회 단백질 제거는 필수입니다.

콘택트렌즈의 단백질 제거는 정확히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한달에 한번 또는 2주에 한번정도 단백질제거를 하시진 않으셨는지요? 콘택트렌즈의 단백질제거는 반드시 1주에 한번씩 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단백질제거는 토요일에 하십시오. 새로운 단백질제거제 「샤린노」—샤린노 콘택트렌즈의 단백질을 제거하시면 1주일만 더욱 상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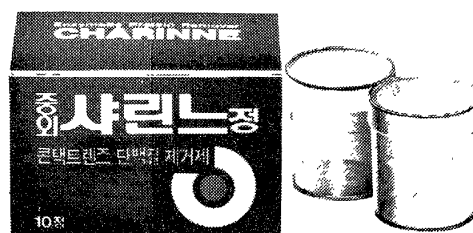
중외제약의 새로운 단백질 제거제 「샤린노」

샤린노는 파인 효소의 뛰어난 분해 작용으로 단백질 제거효과가 뛰어나고 알약의 용해 시간도 짧아 사용이 아주 간편합니다.

안과나 콘택트렌즈 전문점을 찾는 번거로움도 없어졌습니다. 가까운 약국 어디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눈의 가려움증, 충혈, 이물감, 시력감퇴, 안질환을 야기하는 단백질 —

샤린노 1주에 한번씩 단백질을 제거하고 맑고 건강한 젊음을 지키십시오. 단백질 제거제라 부르지 마시고 「샤린노」라 불러주세요.

* 샤린노는 뛰어난 효소분해 작용으로 망상 구조의 콘택트렌즈 틀에 끼인 단백질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 뛰어난 효소분해작용 ● 짧은 용해시간 ● 간편한 사용방법
지금,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주1회 단백질제거제

샤린노정

권장소비자가격 : 1정 → 500원

●마약사범 검거하여 건강시위 이룩하자 ●약은 양심에게 전하는 의사에게

 주식회사 보rium

제7회 학생논문상 佳作

이 은 상

<법정대 법학과 4>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근대 농지제도에 종대한 변화를 가져왔던 계기로는 크게 일제하 토지조사사업과 해방후 실시된 농지개혁의 둘을 들 수있다. 그런데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은 그 상황이 식민지 상태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방후 농지개혁과는 물론 그 이후의 농지제도와의 연속성을 갖기보다는 단절적 성격을 띠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해방후의 농지개혁은 그 이후 현재까지 농지제도에 대한 정책상의 표면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와 농지제도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우리의 농업은 생산의 증대를 위하여 분별히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하고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은 심각한 이농현상으로 <표 1>에서 보듯이 농촌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농촌 인구의 노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88년말 현재 농가는 총 1백82만6천 가구로 87년말의 1백87만1천가구보다 2.4% (4만5천가구) 가 감소, 과거 5년간 (83~87)의 연평균 감소율 1.3%보다 높았다고 농가인구는 87년말의 7백77만1천명 보다 6.4% (4만9천명)가 줄어든 7백72만2천명으로 지난 83~87년의 연평균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2>에서 보듯이 작년말의 남녀별 농가 인구는 남자가 3백56만명, 여자가 3백71만2천명으로 87년말보다 남자는 7.1%(27만4천명), 여자는 5.7%(22만4천명)이 줄어 남자의 인구가 여자보다 싹트고 50세 이상 노령층 인구구성비는 87년말 30.6%에서 작년말에는 32.9%로 2.3%포인트가 높아져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있다. 특히 소생산자적 경영방식과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이에는 선진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한 국내 농민들의 경제적 약화로 전국적인 농민조직의 대동성을 초래하여 정치적 영향권을 행사하고 있어 이것은 단지 농민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농민조직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필자는 인함며 그런 제반 요인들의 구조적 모순을 농지문제에 있다고 보며 농지개혁이 갖는 실질적 한계성과 농지상한제 철폐의 문제점, 농지임대차의 문제점을 지금까지 대두되어 온 농지제도를 분석해 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볼것으로 새로운 농민의 위상과 올바른 농지제도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여 그 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2. 농지제도의 문제점

(1) 농지개혁의 한계성
농지개혁 전의 한국의 농지제도는 영세농경과 분절적 소작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지주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제도의 새로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소유관계였다. 이 기생적 지주제가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극도로 억제하여 왔다. 농지개혁 전의 지소작별 농가호수를 보면 <표 3>과 같거니와 1945년의 남한의 농가수정을 보면 농가호수 2백5만1백03호 중 지주계 자작농은 14.2%에 불과한 218만8천4천5백9호이고, 자작결 소작은 35.6%인 711만1천6천80호이며, 소작농은 50%를 넘는 1백99만6천4호였다.

그리고 호당 경지면적에 있어서도 1.08ha로 소작농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농촌은 이렇듯 의외히 잠재생산력의 잠재력이 작용하고 있다. 한해동계 4만여호에 지배되는 풀이 비닐이 놓여 농가의 구조적 요인의 변화는 연간20만여호 넘는 현상들이 오늘날의 한국농업산업의 침체와 위축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농지개혁사업의 결과 그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으로는 ①정착이 미비한 풀을 타서 밭의 규정을 악용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분배대상 농지가 농지개혁의 테두리 안에서 제외됨으로써 사실상 분배가 완료된 농지는 총분배계획 면적의 69.2%에 불과하였다.

②농지소유 상한은 3정보로 규정하였으나 하한을 규제하지 않았음으로 호당 경지소유의 영세화를 초래하였다. ③농지개혁사업과 더불어 경지의 교환분할이 수월하여야 함에도 이의 실행을 보지 못하여 경지의 분산화 현상은 오늘날의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왔다.

④농지개혁의 입아지를 그 대상으로 제외함으로써 부채산수를 낳게 하였다.

⑤농지개혁이 농지의 재분배에만 그쳤고 영농기술의 도입, 금융지원이 결여되어 분배대상농가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와같이 농지개혁은 소작농을 지주로부터 해방시켜 자작농을 창설하였으나 농업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사후에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농지의 세분화와 분산화를 방지 또는 해소시키지 못한 채 농지의 소유권만을 지주에게서 소작인에게 넘겨준데 불과하였다. 그래서 명문화의 소작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농촌은 소작제도 및 부채지주가 제정되고 있는 소작제도는 융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작제도의 범위, 형태 및 발생원인을 알아내기는 어렵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소작제의 범위는 1965년도에 한국토지경제연구소가 조사한 농지실태조사에 의하면 총경지면적중 18%가 소작지였으며 소작지의 43.8%가 개인 소유지이고 나머지 51.7%는 위토, 신개간지 등 되어있다. 따라서 위법적인 소작지는 개인소유 경작지이므로 전소작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며 총경작면적에 대한 소작지의 비율은 8.1%를 차지한다고 볼수 있다.

둘째로 소작제의 형태와 소작료율인데 농지개혁 이후에 나타난

다만 여기서는 정부가 구조개선을 내세웠으나 상한선철폐가 구조개선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것인가에 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구조개선」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소농경제를 지양하고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기계화 대경영으로 농업을 재편성하는 것이라 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상한선철폐가 이것과 어떤 관련을 가질 것인가를 살펴본다.

그동안 농촌인구의 격감과정에서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도 일손이 딸려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었다. 기계를 들여놓고 보니 1ha 내외의 경지규모는 달할것도 없고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 3ha에서도 기계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일본에서의 시정 결과는 8마력경정용기가 6ha를 감당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기계의 성능에 비하여 과소한 면적을 경작할 때는 이른바 「기계화 原因을 초래 한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해서 일부 부농층에서 상한선철폐를 끈질기게 주장하고 나선다.

또 이것은 구실로 하여 농지개혁에 반감을 품고 분배에서 누락시켜 3ha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과거의 불법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도 이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농지제도의 문제점과 방향

다 또다시 이농속진으로 농민을 농촌에서 추방한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오늘의 농지문제는 소작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소농경제의 지양, 기계화 대경영의 창출이라는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은 나올 수가 없다. 거기에는 소작을 임대차로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고 오�히려 더욱 악화될 가능성만 있고 「구조개선」의 명분하에 상한제의 철폐가 소작의 확대라는 농민의 무산화를 촉진하여 그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 정치불안을 자초하고 말 것이 불을 보듯 확실한 것이다.

(3) 농지임대차의 문제점

정부는 1986년12월31일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분포하고 그시행령을 87년10월1일자로 공포한 것을 예고 하였다. 그러나 법의 입안당시부터 논란이 많았고 특히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는데에 정쟁적인 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못한 탓으로 잘못된 점이 다들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여론도 결코 긍정적이지

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간변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기발한 설문이다.

셋째, 현재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의 소작을 허용하지만 이의 소작을 촉진하기 위해 재산세를 증과한다고 한다.

네째, 농지구입희망농가에게 2년 거치 18년 분할상환의 농지구입자금 (구입비의 80%)을 융자한다고 하였지만, 이돈으로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전환되기는 거의 무망한 일이다.

88년의 농지구입자금 2천억원을 92년까지 1조원으로 늘린다고 하였지만 이들은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마련하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예 아니라 이 농지구입자금은 3ha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하려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이 밝혀져 그 진의를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농지구입자금의 방출이 지가를 상승시킬 것이다.

전자본제적 농업구조에서의 한국의 농지가격은 이 공식에 기초를 두면서도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다.

자본주의 경제철학에서의 전자본제적 농업경영이 당연하는 예라고 할것이다. 이렇게 저리용

심사평

주 중 환

<농과대교수·농업경제학>

「농지제도의 문제점과 방향」을 논함에 있어서는 현행 농지제도를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저술된 세 편의 논문들 모두 이 점에서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장준호의 논문은 한국 농지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논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소비하였고, 현행 농지제도의 문제점의 분석이나 정책방향의 제시는 지극히 간단하게 다루고 있다. 또 자기 논지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갖추지 못하여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박도환의 논문은 농지제도의

병약하게 만들고 병충해에 시달려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위한 농약은 그 도를 더해가고 대부분의 농민이 농약중독을 경험했거나 그로 인해 건강을 크게 다치고 있다. 뿐만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남아있는 농약잔류독소는 전체인민의 건강을 위협하고있다.

한마디로 소작제도는 농업발전의 저해하는 기본적 요인이되고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로 있어 이를 폭과할수없는 단계에 이른것이다.

전국 각지의 자생적인 농민단체들에 의해 「토지는 농민에게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소작제 일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근거를 이삼과 같은 데서 찾을 수 있다.

한정 정부 여당은 비농민의 농지 소유에 대해 누진세를 두면

게 매김으로써 자발적으로 땅을 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아당의 경우 앞으로 제정될 농지법의 결과규정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농지를 가진 부재지주의 땅을 유상몰수해 농민들에게 분배해 주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재벌의 소유농지를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전 재벌소유 농지에 대해서 본다면 이것은 재벌소유 농지뿐만 아니라 비농민의 소유농지 가운데 특히 매매의해 소유된 농지에 다 해당이 되겠지나 이것은 분명히 현행법상으로도 농지개혁법과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9조의 농지매매 증명절차를 탈법적으로 위해 함으로써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근거는 갖출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이론과 법적 장치를 강구해 보아야할 문제이다.

그리고 앞에서 전술한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방식은 정부가 비농민 부재지주에게 강력한 누진

농업육성은 비농업 분야로부터의 재정지원과 함께 비교우위론 적용에서 제외해 실질적인 농업정책을 펴야 한다

세를 적용하는 한편 농민들에게는 장기 저리로 농토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현시세 보다는 비싼 값으로 비농민의 토지를 사들여 싼값으로 농민에게 불하하여 그들 농민들에게 경자유전의 원칙에따라 일차적인 터전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 그런 엄청난 국가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일종의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쌀의 이중 가격제의 형태를 취한 것이 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은 정부가 공업화 정책 일면에서 재벌기업에 배분 각종 금융상의 혜택에 비하면 세발의 피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농업 황폐화 정책에 묶인 내지 앞장 섰던 정부가 어느 정도 공업화 정책에 성공한 지금 이제 그러한 여력을 농민에 쏟을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협소한 국토의 효율적인 측면과 진실로 농민과 나라살림의 장래를 위해 오늘날의 농업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의 특수성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농업은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산업이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토지소유와 그에 따른 지대의 존재로 농업에 자발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적어지고 이에 따라 생산성 발전이 뒤처진다.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을 올려도 땅을 빌리거나 구입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또한 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 (토양, 지형, 기후등)의 제약을 많이 받아 기계화가 늦는 등 생산성 발전이 공업부문 보다 뒤떨어지고 국가별로 생산성의 차이가 크다.

<표 1> 연도별 농가수 감소추세

연도	85년	86년	87년	88년
농가수 (총가구에 대한 구성비)	1,926 (20.1)	1,906 (19.3)	1,871 (18.4)	1,826 (17.2)
농가수 (총가구에 대한 구성비)	1,518 (78.2)	1,509 (79.2)	1,464 (78.1)	1,417 (77.6)
농가수 (총가구에 대한 구성비)	408 (21.2)	397 (20.8)	407 (21.7)	409 (22.4)

<단위> : 가구수, 구성비%, 전업 겸업농가 구성비는 총농가수대비
資料 : 東亞日報 (1989. 3. 9日)

<표 2> 88년말 현재 연령별 남녀별 농가인구

연령별	총농가인구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7,272	2,572	740	685	881	1,166	1,228
남자	3,560 (49.0)	1,327 (51.6)	412 (55.7)	335 (48.9)	406 (46.1)	538 (46.1)	542 (44.1)
여자	3,712 (51.0)	1,245 (45.4)	328 (44.3)	350 (51.1)	475 (53.9)	628 (53.9)	686 (55.9)

<주> : 단위> : 천명, 괄호안은 해당연령의 남녀별구성비 (%)
資料 : <표 1>의 것과 같

<표 3> 해방 전후의 자소작별 농가호수 단위 : 호

연도	1944	1945	1946
지 주 결 자 작	276,733(14.8)	284,509(14.2)	337,271(16.3)
자 작 결 소 작	691,949(37.2)	716,080(35.6)	810,181(39.1)
소 작	890,752(48.0)	1,009,604(50.2)	923,686(44.6)
계	1,859,434(100.0)	2,010,193(100.0)	2,071,138(100.0)

자료 : 조선은행, 조선경제연감, 1948. () 안은 %

통력평균치를 중심으로 한 기계화 체제에서 6ha정도가 적정 규모라고 하고 20마력이나 25마력의 중형트랙터를 중심으로 하는 기계화체제에서는 30ha정도가 적정규모라고 한다. 오늘날 세계 농업농업화가 소농경제에서 중형, 대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에서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제도는 중형, 대형기계에 걸맞는 것이어야 한다. 개방경제에 대해서는 소형기계로서는 곧 한계에 부딪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 따라서 기계화 대경영으로 개방경제에 대응하려면 적어도 30ha~50ha 규모는 되어야 한다.

상한제를 철폐하였다고 할 때 이같은 대규모의 농장이 출현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 농촌에는 3ha이상 농가가 1.2%라고 하지만 이들은 고작 통력트랙터에 의존하고 있고 기계화의 이점이 곧 부딪힐 것은 한계내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다. 1.2% 가운데 몇 사람이 30~50ha 규모로 늘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무망한 일이고 있다고 하면 이때에 나타난 농촌의 상황은 생각만 하해도 두려워진다. 수많은 영세농민이 토지로부터 추방당하고 실패의 홍수는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상한선철폐 제로 중형, 대형의 기계화가 실현될 수도 없다면 된다고 해도 걱정스러운 것이다.

정책당국자가 이같은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일이고 예상하고서 하는 일이다. 더욱이 이해할 길이 없다.

많은 나라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자본은 공업화과정에서 필요 한 임금노동자를 농촌으로부터 끌당기기 위해 이농속진 정책과 아울러 소수자에 의한 토지점령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토지에를 2차적 노동시장에 형성하고 있는 빈민층, 이른바 잠재적 실업의 증대가 허덕이면서

정적인 것이 되지 못하였다. 그 여력을 의심하였을인지 87년12월16일의 제6공화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0월1일자 시행령공포는 유야무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거니와 제6공화국 발족후 정부는 「농지의 합리적 이용, 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할 것이라고 한다.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문제되는 조항들을 보면,

셋째, 임대차는 허용하되 그 기간이나 「임차료율은 규제한다고 하여 소작을 임대차라는 말로 바꾸어 놓고 사실은 헌법에서 금지한 소작의 양상을 띠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이니 만치 마땅히 위헌정정을 받아 폐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만일 이 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그동안 불법적으로 만연되어온 현재의 소작이 보호를 받게 되고 앞으로

소작농이 지불하는 소작료의 과다지불로 농업에서의 잉여 자본이 내부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있다

소작은 더욱 더 만연되어 일제하에서 볼 수 있었던 촌내제적 인자의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임대차와 소작은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에서도 소작 또는 임대라는 똑같이 금지해 놓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재혼지주는 농민이라고 하고 부재지주는 비농민이라고 규정하여 재혼지주의 농지소유는 경

한 나라의 토지제도의 변혁은 그 나라에 있어서의 생산력과 총들의 정도, 여기서 열출되는 이해당사자들의 교섭력의 정도, 그와 정치적 표현으로서의 권력구조의 성격에 의해서 규정지워진다는 역사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에 사는 우리가 보자나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보람을 찾을 진대 농지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을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기초로 한 국민경제발전 이란데 틀 수 밖에 없고 이에 초동되는 농업에서의 재편성, 특히 수입개방압력에 대응하여 농민이, 그리고 전체 국민이 살아남기 위한 농업의 재편성을 꾀하여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첫째로 지적되는 것은 소작농이 지불하고 있는 소작료가 연간 5천원을 상회하여 농지에서 영익이 농민내부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농업외부로 유출되어 농업발전의 길이 막혀 있다.

소작농이 지불하는 소작료의 과다지불로 농업에서의 잉여 자본이 내부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소작료가 농업에서의 영익이 아니고 소작농의 노동부담을 잠식한다고 하면 그들의 생활을 파괴하고 건강을 해쳐 농업노동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셋째, 소작지에 대해서는 토지개발이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투자를 꾀하기가 화확비료에 치중함으로써 땅이 산성화되고 토지생산력을 저하시킨다.

네째, 토양의 산성화는 작물을

현황에 관한 논의에 많은 지면을 배정하고 있으며, 자기 지와 숫자 및 자료의 근거에 대한 각주처리에 있어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농지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논거의 제시가 미흡했다. 위 두 편의 논문에 비하여 이은상의 논문은 현행 농지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자료와 근거의 제시에 대해서도 각주를 통하여 상당히 성의있는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만하다.

그러나 몇 개 장소에서 낡은 자료와 숫자를 제시하고 있으며, 표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듯 하다. 또 농지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해서도 제시된 참고문헌목록을 전부 자세히 읽고 그것을 속에서 방향을 찾아보았다면, 좀 더 실현있고 설득력있는 방향제시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점에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농업 부문은 비농업분야로 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며 비교우위론의 적용에서 제외하여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설 때 올바른 농업정책은 첫째, 비농민 소유 농지를 매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하고, 비농민 농지소유를 금지하는 농지정책은 농업보호의 기본적 조치이다.

둘째, 규모확대와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3정보 소농상한 철폐가 아니라 소농들의 협업화를 추진하여 대규모 경영과 전문화의 장점을 살려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농업을 안보적 차원, 기간산업 차원에서 지원 육성해야 한다.

參考 文獻

1. 단행본
2. 金炳台「韓國農業의 발전이론」대하출판사, 1979.
3. 金俊輔「한국자본주의의 연구(Ⅰ)」, 일조각, 1970.
4. 金俊輔「한국자본주의의 연구(Ⅱ)」, 일조각, 1974
5. 朴玄採「한국농업의 구상」한길사, 1981
6. 俞仁浩「한국경제의 재평가」일월서각, 1984
7. 朱宗權「농업경제학 연구」동국대학교 출판부, 1974
8. 논문
9. 金炳台「농업구조개편과 농지정책」『농업정책연구』, 제15권제2호, 1988. 12. 8 金聖賢「농지제도 및 농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K R E I, 1984. 12
10. 金聖賢「농지임대차 제정을 위한 조사연구」K R E I 1986
11. 金聖賢「농지임대차에 관한 조사연구」임차제 실태를 중심으로 K R E I, 1982
12. 김승진「우리나라 농지임대차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13. 朴玄採「재생소작제도의 경제제도의 규정에 대한 이론적

론

등록금·교과서대금 환불 요구 확산

1학년 자치협의회 주최 총결기대회 지난14일 학생 1천여명 운집 본관서 시위

「등록금과 교과서대금 환불을 위한 1학년 총결기대회」가 14일 오후 1시 1학년자치협의회 주최로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부총학생회장 인사말, 학사위원회 성명서 낭독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1학년 자치협의회 아간장대표 유현진(아간·경일 1)은 「학교측은 계속 실무자가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1학년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등록금이나 교과서 대금만이 아닌 등록금환불을 위한 재단혁신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운집학생대표들은 교과서대금 환불에 대해 「다음 주 급요일까지 환불방법을 강구, 교과서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학생들은 등록금인상 분할환불을 촉구하면서 본관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며 자진해산했다.

한편, 등록금 환불방법·시기에 대해 학교측은 오는 26일까지 결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교과과정 개편 투쟁선도 화 1」군은 「실무자가 없다는



△ 1학년생들의 등록금과 교과서대금환불요구가 가열되고 있다.

식 및 1학년 등록금인상분 환불을 위한 2차 결기대회」가 지난12일 오후 1시 학생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대회는 1부 등록금 환불에 대한 1학년 결의, 2부 교과과정 개편투쟁선도 화 1)군은 「실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합의된 사항을 기피하는 학교는 1학년의 학원자주와 투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중앙교과과정 오세민(보교 4)군은 「다가오는 민주화투쟁에 대비해 어음무능세력의 타격을 위한 대개고리로서 교과과정투쟁을 선포한다」고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집회는 마이크시설 미

비로 1천여명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1백50여명만이 남아 진행했다. 「교과서 반환·환불」문제를 오는 21일(금)부터 환불 주기로 발표함으로써 일단 해결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11일에 출판부(영문 4)군이 「1학년들의 교과서 반환과 환불」에 대해 가진 1차원칙을 제시했다. 출판부가 반환된 교과서에 대해 환불해줄 것을 동의했으나 교과서를 반환한 학생들의 명단과 권수들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해 환불시기와 방법문제는 차후 논의하기로 한바 있었다. 그러나 장시간을 요하는 관계로 일단은 21일부터 교과서 반환한 학생들에게 환불해줄 예정이다.

기회홍보와 업무개시 부총장 직속기구역할 경주캠퍼스 부총장 직속기구인 「기획홍보과」가 지난날 29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노정권 퇴진 투쟁본부」 발대식 「자주·민주·통일의 날까지 투쟁」

「광주학살 부정비리 및 민중생존권 탄압의 주범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본교투쟁본부 발대식」이 지난11일 오후 2시 학생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총학 연대사업부장 김수연(국문 4) 양의 사회로 열린 이번 대회는 현대 노조투쟁

결과보고, 투쟁결의문 낭독, 실천대회순으로 이어졌다. 김성규(사학·4) 총학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미제와 군사파괴를 끝낼 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다짐했고, 투쟁본부장 박금희(국문 4)군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노정권의 탄압을 분쇄하

고 자주민주통일의 그날까지 모두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실천대회에서 3백여명의 학생들은 「노태우 화형식」을 갖고 중문으로 진출, 최후탄과 돌로 맞서는 전경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인 뒤 오후 4시30분경 정리집회를 갖고 자진해산했다.

습관도 습관을
○...남산 코끼리의 수직
심을 빈방에 담아(?) 수
화산의 열기로 전경들에 던
지는 것과 대비해...
본교와 한양대의 춘계야
구 준결승전 도중 열린 음
원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
는데 손에 쥔 병을 놓쳐

보통시대 보통족구
○...전경에서 피를 부
르는 싸움중
에도 담배한
대를 피우는
담배의 여유
만만함(?)
을 사람들은
꽤나 동경하

대에 걸맞는 「보통 족구」
한편 요란하군요!
○...나뭇가
지 사이에 누
운가 폭풍 속
겨울은 보물
(?) 들어올
것을 찾아
피웠는데...

시 가까운 쓰레기통 속에
숨겨놓길 바란다
의욕→활기→감동
○...의욕있고 열정적인 활
동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
동을 일으키는대...
본지1016호 「동아리자서
의」 「전전한 선거종로 조성
패아」 제하 기사 발표이후

병든지기는 대상을 구별해야...

그런 경기장에 안락(?)시
키고, 웃음을 벗어 댈수
만족을 노출하는 등 타
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
는 사제가 발생해...

는 표정으로 보는 듯.
생사를 다루는 출산 현
대중공원에서 한껏 여유를
부리며 백골단과 전경들이
주위를 했다는데...

요즘 학생들 사이에 유
행되고 있는 보물찾기 덕
분인지 캠퍼스 곳곳의 은
밀한 장소(?)에 숨겨진
보물들이 나뉘고 있다
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당
부하길 「이제부터는 땀과
있는 보물(?)은 보는 측

중생위원회를 하고 진상조
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수고에 호감을 느
끼...
앞으로의 사업에도 계속
적인 열의를 부탁하며 질타
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전투를...

기업체, 공학계열 등 전문인력 선호 사범대학 의무발령제도 시급해

기획취재

취업자료의 전산화와 홍보비 지원 절실

취업대책을 바로 개선해야

로 마련되지 않은 것에 기
인한다 할 수 있다.
남·여별 취업률은 서울캠
페스의 경우 남자가 81.2
%인 1천4백28명으로 높은
반면 여자가 50.7%인 2
백81명으로 남·여간의 취업
률 격차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와같이 여학생들의 취업
률이 저조한 것은 일반기업체
나 공공기관 등에서 대졸여성
인력을 선호하지 않고, 또한
여성들 자신도 이러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
는 순응하기 때문으로 보
인다.

다음으로 각 단대별 직종
취업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
기업체에는 공과대가 졸업생
3백2명중 1백69명, 경상대
가 2백43명중 1백10명이 취
업해 고도로 산업화되어 가
는 현대사회에서 공학계열과
기업체운임을 맡을 전문인력
을 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공공기관에는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등이 속해있는 사회
과학대가 20명이 취업해 가
장높았고 타 단대의 경우 나
대대 3~4명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계에는 아간장차가 94
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대
가 53명, 공과대가 13명, 법
과대가 9명, 문과대·이과대
가 각각 6, 8명으로 나타났다.

각 계열별, 남·여별 취업
격차의 심각성에 대해 한 취
업정보지의 관계자는 「기업체
에서 일부 특수직이나 전문
직을 제외하고는 응시학과와
직을 제외하고는 응시학과와

한을 철해, 또는 대졸완사
켜 계열간, 학과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
다」하며 「학교당국도 대학정
원을 사회에서의 수요가 많
은 분야의 수를 늘리고 그
렇지 않은 분야는 적절히 정
원을 줄여나가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에서는 졸업예정
자들의 취업대책을 위해 총
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3차
2실장으로 삼일위원회를 구
성, 지도방안을 협의하고 있
으며 단과대별로 단과대학장,
과별지도교수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를 열어 특수사안을 마
련중에 있다.

또한 학생회에 취업제를 두
어 실무를 담당케하고있다.
타대학의 경우에는 취업을
담당하는 독립된 부서(사학
생처에서 분리설치)에 : 학생
대 취업정보센터, 건국대 취
업정보부) 되어 독자적인 취
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재남동문 외사최종합격

본교 정
재남(법학
88학)군이
「제23회외
무고등고시
」에 지난
11일 최종
합격했다.

여대 졸업생중 내년제로 외
무고시에 합격한 정재남군은
지난 2월 15일에 1차, 지
난 3월 25일 2차시험에 각
각 합격한바 있다.

학동계회(시간) 확장, 의회
과작업등을 마련할 것이다.

재활추 불투명

이사장실점거 43일째

오늘(19일)로써 이사장실
점거농성이 43일째를 맞는
가운데 학생·학교측간의 대
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
단확실회추진위원회」가 불
투명한 상태에 있다.

이는 지난12일 협상에서
재단측이 입장금 5억씩정리
근본적이지 못한 대책을 제
시함에 대해 학생들이 거부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기 때
문이며 선거후유증으로 인한
학생회측 제 정비비등도 주
요인이다.

총장기쟁탈 농구대회

양정고·인성여고등 11개組 33개팀 출전

개교83주년기념 본교총장기
쟁탈 「제15회 전국 남·여농
구대회」가 총33개팀이 참가
하여 오는 24일부터 본교체
육관에서 열린다.

89년도 고교농구의 정상을
가리게될 이번대회는 양정고,
인성여고를 비롯한 남고부15,
여고부 18개팀이 참가하여 남
고부 5개조, 여고부 6개조
로 나뉘어 예선리그를 거친
뒤 상위2개팀이 결승토너
먼트 우승을 가리게 된다.
이 대회는 준준결승까지는
본교 체육관에서 치르게 되
며 준결승·결승경기는 오는
2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갖
게 되는데 남고교부 조편
상은 다음과 같다.

△남고부
▲A조=계성고, 전주고, 전
북기계고 ▲B조=충익고,
송도고, 광신고 ▲C조=강원
사대부고, 평주고, 동아고
▲D조=삼산고, 조산고, 수도고
▲E조=양정고, 대경고, 전주고
△여고부
▲A조=인성여고, 혜성여고
효성고 ▲B조=숙명여고,
경여고, 청주고 ▲C조=
덕성여고, 전북사대부여고, 육
전여고 ▲D조=춘천여고, 영
광여고, 기전여고 ▲E조=신
광여고, 소피여고, 의성여고

인사면 발기인대회
동국 학풍새신 기치로
본교 대학원 「인문사회학
연구회(이인사면) 발기인대
회」를 동국미래대학, 동국학
풍의 새신발 발원을 기치로
오는 21일 오후 5시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갖는다.

이번 대회에는 인사면연구
학회, 검토, 취지문 검토 및 각
기구별(철학·역사·정치경제
학·문화·법학과) 준비모임이
있을 예정으로 이의 준비위
원장으로는 이종한(사학·박
사과정)군이 내정됐다.

한편 인사면준비위는 오는
28일 오후 5시 청담대학 개회
를 교수세미나실에서 열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인사면

「제21대 총대의원회 발대식
및 제1차 정기총회」가 오
는 20일 오후 4시30분 중강
당에서 열린다.

총2부로 행해질 이날 행
사는 1부 발대식에서 건대
단과대, 서울시립대등의 총대
의원회 의장단초개, 역대의원
단 인사자, 2부 정기총회에서
신안간담이 각각 있게된
다.

한편 이번 회의 안건으로는
총학사임제회칙의의및 집행
부인단, 대총 사업계획심의·
보고등이 상정돼 전체 대의원
의 과반수참석, 과반수 찬성으

로 가결된다.
서울캠퍼스 대총산하 「제20
대 총학생회 예산지출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진조위)」가 지난 11일 발
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
에 들어갔다.

21대총학생회선거 공개청문
회(3월22일)에서 기조3번으
로 출마했던 채범기(행정 4)군
의 문제제기를 시발점으로
형성된 진조위는 총대대의원회
원정원(총정·3)을 4원장
으로 중앙위원 5인, 추천위원
5인등 총10인으로 구성됐다.
진조위는 대총사무실에서 발

대식을 갖은 후 12일 총학
과 학생복지위원회에 88년사
업계획서, 예산안, 수익사
업결과보고서등의 서류요구공
문을 보냈으며, 지난 13일에는
학생회측에 예산안출서를 요
청했다.

또한 15일과 17일에는 중앙
위원 5인이 합숙에 들어가 서
류검증, 증인채택, 청의내용,
설문지내용등을 토의했다.
또한 진조위에서는 지난 17
일 20대총학 예산지출과 대
총 감사에 대한 설문지를 배
포했으며, 26일 이후 공개청문
회를 가질 예정이다.

全國大學新聞
광고문의 741-1166 6612

軍·행정병 모집
자적! 17~26세 고등학생(예과·문과·이과)
특전! 수료후 자적! 17~26세 고등학생(예과·문과·이과)
육군참모총장 위촉처
관인인상서에 차트하원
732-5346
735-3771

그대가 '배움의 삶' 그 끝에 다다랐을 때
그대는 '노련의 삶' 그 시작에 닿았을 것이다.
權石昌 詩集
칼릴 지브란
모래물거품
702-2921
717-2131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 학급
에 열명 안팎의 학생만을 등록시
키고 영어 공부 제대로 시켜 온
학원에 나가 영어 회화 졸업할
기회로 적정하신 이러한 외면할 수
없는 곳
선생은 모두 자적있는 서양 사람
이요. 학생은 모두 사귀어 둘 만
한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인
곳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허겁지겁
와서 보채지 말고 좀 미리 연락
하면 순서와 영어 수준에 따라 공
평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익숙 때문에 학급을 운영하는 것
이 아니라 공익 재단의 연구 사
업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
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영어 담당
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105기 수강생 모집안내
기간 1989.5.3~6.28(8주)
과제 1일 75분 수업 1회
강사 NATIVE SPEAKER 적당
반원생 LEVEL에 따라 6~13명
등후. 선착순접수
89 여름방학 해외 어학연수
(89.7.8~89.8.8)
제105기 수강생 모집안내
702-2921
717-2131

프랑스어
5~6월 학기 수강접수중
개강: '89.5.1(월)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 - Adultes
MÉTHODE
TELEVISUELLE
MÉTHODE
TELEVISUELLE
알라앙스프랑세즈
-초급 문법·회화 일반반
-중·고급회화, 비데오반
-시사·무역·작문·동시통역반
-문학특강반, 연극 및 토론반
séoul-centre ☎ 755-4972, 5702(중구)
nam-séoul ☎ 555-1125, 1126(남산)
PUSAN ☎ 622-3601 KWANGJU ☎ 526-0189
TAEJEON ☎ 22-4630 ULSAN ☎ 254-3475
alliance Française
한·韓 傳文化 財團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별 학급편성
• 동일Level로 구성된 12명정원제
• 엄격한 학사관리
• TESL(영어교육학)을 전공한
상위급 미국인 강사진 담당
• 수업일수 20일
Placement Test매월 20일
부터 (1시, 2시, 3시) 3회
PAGODA
LANGUAGE SCHOOL
274-4000/6921~2

